

‘고유가’에 수산물값 ‘뛴박질’

어민들 조업 포기 ... 반입량 크게 줄어

한달새 오징어 33%·고등어 20%↑

어업용 면세유가 급등함에 따라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늘어나면서 할인점과 수산물시장 등에 들어오는 수산물의 반입량이 크게 줄었는가 하면 수산물값도 크게 뛰고 있다.

특히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수입산 수산물값마저 급등,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 등으로 유통을 기피해온 소비자들이 ‘먹을거리 공황’에 빠지게 됐다.

21일 수협과 어민들에 따르면 조업비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업용 면세

유(고유황 경유)값은 지난 1일 200ℓ 들이 한 드럼이 22만4천560원에 거래돼 1년 전(10만1천940원)보다 두배를 넘었다.

채산성 악화를 호소하는 어민들이 줄이어 조업을 포기하는가 하면,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현금보전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상 시위에 나서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현재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 수협광주공판장에 들어온

는 수산물 반입량이 지난해 동기대비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병어(10kg)는 17만~18만원, 고등어(24~25마리)는 3만5천~4만원으로 전달에 비해 5~15% 올랐다.

일본산 명태·꽁치는 10~15%, 중국산 낙지는 30~40%,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20~30% 오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광주공관장 관계자는 “수산물 비수기여서 반입량도 줄고 고객들의 발걸음을 뜯한 편”이라며 “그러나 유가 상승과 어민들의 줄어포기 등으로 물량이 줄어들어 수산물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마트에서도 고등어(국산·1마리)가 6월20일 2천980원에

서 7월20일 3천600원(20.8%), 병어(3마리) 1만1천800원→1만4천원(19%), 삼치(1마리) 2천800원→3천500원(25%), 오징어(1마리) 900원→1천200원(33%), 갈치(2마리) 7천800원→9천800원(26%) 등으로 올랐다.

수입산의 경우 연어(100g·노르웨이산) 1천800원→1천180원(10%), 꽁치(5마리·대만산) 2천180원→2천480원(13.7%), 생태(2마리·일본산) 5천800원→6천560원(13%) 등에 거래됐다.

이마트 수산팀 담당자는 “수입산 가격이 오르면 국내산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은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기업들 여름휴가 평균 3~5일

하남산단 70여사 등 조사 ... 휴가비 지급도

광주·전남 기업들의 올해 여름 휴가 일수는 평균 3~5일 정도로 파악됐다.

21일 광주·전남 기업체와 하남산단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지역 기업의 여름휴가는 이달말에서 8월초에 집중돼 있고 휴가일 수는 중소기업의 경우 3~5일, 대기업은 5일에서 최고 9일로 파악됐다.

광주시 하남산단내 70여개 기업의 경우 휴가는 대부분 이달 말에서 8월 초순에 평균 3~5일간으로 잡혀있다. 휴가비는 상당수 기업이 단체협약에 따라 본봉의 50~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의 경우 삼성광주전자는 이달 31일부터 8월4일까지 전국 10곳에 있는 캔도를 40~50% 할인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해수욕장 8곳에 텐트촌을 예약해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에어컨 생산라인 근로자들은 예전에 성수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휴가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도 매년 정해진 휴가일정인 다음달 1~5일까지 휴기에 들어가는데 특히 올해는 단협상의 하계휴가비를 작년보다 5만원 오른 50만원을 지급하고 경남 남해 상주해수욕장에 하계휴양소를 설치, 피서 편의를 제공한다.



기아차 인천공항 라운지 서비스
기아차가 21일 자동차업계에서는 처음 인천공항내 여객터미널 2곳에 오피스와 모하비 고객들을 위한 라운지를 개설했다. 이 라운지는 뷔페·음료시설 등을 갖춰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특별서비스를 제공

(기아차 제공)

기아 준중형 신차 ‘포르테’ 사전 계약

기아차가 프리미엄 준중형 신차 ‘포르테(FORTE)’의 사전계약을 실시한다.

다음달 출시예정인 포르테는 스포티한 디자인과 차급을 뛰어넘는 뛰어난 성능, 상품성으로 출시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포르테 사전계약은 전국 기아차 영업지점을 통해 21일부터 다음달 출시일 전까지 진행되며, 사전계약 고객들에게는 차량출고시 계약금 10만원

이 지원된다. 계약금 할인 이벤트와 더불어 기아차는 사전계약 고객들을 위해 ‘포르테 추천 릴레이’ 이벤트도 마련했다. 포르테 홍보 이메일을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포르테 추천 릴레이’ 이벤트에 응모한 사전 계약고객과 홈페이지 회원들은 추첨을 통해 노트북, 아이팟터치, 닌텐도 Wii, DKNY 향수, 스타벅스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받게 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대한조선 두번째 대형 선박 진수

해남조선소 17만t급 벌크선

노르웨이 선주에 내달 인도

대주그룹 계열사인 대한조선은 21일 해남군 해남조선소에서 두번째 선박을 진수했다.

이날 진수한 선박은 노르웨이 골든오션그룹이 발주한 8척의 벌크선 가운데 하나로, 첫 선박은 지난달 27일 선주에게 인도된 바 있다.

1호선과 동일한 17만500t급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인 두번째 선박은 길이 289m, 폭 45m 규모로 이 날 도크 내에서 이뤄져 암벽으로 끊겨진 이후 마무리작업을 거쳐 다음달 선주에게 인도된다.

대한조선은 지난해 8월 해남조선소에 1도크를 가동하며 신조선 사업을 펼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첫 선박을 계약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인도했다. 이어 두번째 선박을 1호선이 인도된 지 20일 만에 진수하게 됐다.

대한조선 김호충 사장은 “1호선 건조 당시에 비해 공기는 대폭 단축한 반면 품질은 한층 향상됐다”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고 있어 대한조선의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선보이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도크에서는 오는 11월 인도를 목표로 세번째 선박이 60% 대의 공정률을 보이며 한창 건조되고 있다. 대한조선은 올해에만 모두 5척의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을 인도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대한조선이 21일 해남군 화원면에 위치한 해남조선소에서 노르웨이 골든오션그룹으로부터 수주한 두번째 선박을 진수하고 있다.

(대한조선 제공)

光銀 금고 무료 대여

광주은행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여금고 무료임대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22일부터 8월31일까지 계속된다.

대여금고 설치점은 PB센터본점(1천648개), PB센터 상무점(144개), 순천지점(134개), 목포지점(141개) 등 4곳으로, 2천100여대의 대여금고가 무료 제공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치평동 ‘상무 스타타워’ 본격 입주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인테리전트 복합건물인 ‘상무 스타타워’가 21일 본격적인 입주에 들어갔다. <사진>

‘스타타워’는 지하2층, 지상14층 규모로, 균형상가(지하2층~지상2층)와 맞춤형 센터오피스(3~9층)로 구분된다. 상층부의 경우 오피스텔(10~13층)과 스카이라운지(14층) 등으로 꾸며져 있다.

인근에 광주시청, 이마트, 시민공원 등이 있으며, 편리한 교통여건과 무등산 조망권 등을 두루 갖췄다. 문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무안·장사(장가계) 직항

광주 할인 항공권 ₩ 649,000-

7/27, 7/31, 8/3, 8/7, 8/10, 8/14, 8/17 출발
항공권 고급객! 가격은 다운!!

GOLF

4명부터 출발가격 ₩ 899,000-

